민주당 새 원내대표 박 지 원 의원

"장외투쟁 자제…희망주는 정치 하겠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지원(67·목포)의원은 "민주당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는 "시민배심원제 등 개혁공천 준비가 부실했고 경선관리도 문제가 있었지만,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 달라"며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막으려면 민주당을 성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관계가 경색됐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겠다. 장외투쟁도 되도록 자제하겠다. (우리도)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여당도 청와대의 지시에 맹종하기보다는 상생의 정치, 의회 정치가 실현 되도록 변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았다.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핵심에서 일했고 정권 재창출의 중심에 있었다. 대북 송금 특검으로 시련도 겪었다. 이런 경험을 밑천으로 꼬인 정국을 잘 풀어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

경선관리·개혁공천 준비 부실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봐 달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모든 정당은 공천을 앞두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등 개혁 공천에 나섰으나 준비가 소홀했고 경선 관리가 일부 부실한 점도 있었다. 거듭나기 위한 진통이라고 이해해 달라.

-진통이라고 하기에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선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겹쳐서 경선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된 점도 있다. 지역민의 우려와 질책을 달게 받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민생의 목소리를 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의 민주당으로는 정권 창출이 요원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타정당을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화난다고 집에 불을 지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오만무도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을 성원해주셔야 한다.

-민주당이 중도와 진보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도냐 진보냐를 따지는 이념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념에 집착하면 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좁아진다. 서민경제와 남북문제, 민주주의 등 생활 전반의 문제를 민주당의 그릇에 담아야 한다.

-원내대표 경선 승리와 함께 지도체제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순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당 대표를 하고 2위부터 7위가 최고위원으로 선정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 여기에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강원 등 취약지역 인사를 지도부에 참여시켜 당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당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한마디로 소통과 리더십이다. 순수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되면 자연스레 지도부 내의 소통이 강화된다. 여기에 상임위와 지역별 소통 창구도 강화할 것이다. 당내 소통이 강화되면 자연히 지도부의 리더십도 강화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국민의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인 IMF 사태를 현명하게 극복했다. 반민주적, 반서민적, 반경제적, 반인권적 요소를 해소시켰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진전된 민주주의의 실천에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ABKR(Anything But Kim and Roh)노선을 실현하면서 과거로의 역주행에 나서고 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나선 배경은.

▲어려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시절 국회의원과 원내총무가 꿈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별명이 '야당 원내총무'였겠나. 이제야 꿈을 이뤘다. 이럴 줄 알았으며 YS처럼 어렸을 때 장래 목표를 대통령으로 할 걸 그랬다. (웃음)

반대만 하는 당 되지 않겠다

여당도 靑 지시 맹종 벗어나야

-DJ의 미국 망명시절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됐다는데.

▲당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DJ를 뵙게 됐다. 그 자리에서 DJ는 한국의 경제와 노동자를 위해 한국 물품을 많이 수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여력이 있다면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DJ의 심부름을 하면서 정계에 진출하게 됐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던 시절이다. 당시 내 마음속에는 세 가지 다짐이 있었다. 우선 '운동만이 살길이다'는 생각으로 운동에 집중했다. 다음으로는 성경 읽기였으며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편지쓰기였다. 한이나 오기는 없었다.

-동교동계와 아직까지 불편한 관계인지.

▲그렇지 않다. 오해는 모두 풀렸다. 이 과정에서 이희호 여사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 권노갑 고문, 김옥두 전 의원 등은 원내대표 경선에 많은 도움을 줬다.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애창곡은

▲운동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주로 걷는다. 수면 부족은 차 안에서 토막잠으로 해결한다. 애창곡은 남북정상회담 당시 불렀던 '내 곁에 있어주'다. 당시 앵콜이 있어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를 부른 기억이 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지원은 누구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전 최측근으로 꼽혔던 재선 의원이다.

197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그는 망명중이던 김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계기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특유의 성실함과 뛰어난 메시지 전달력으로 민주당과 국민회의 시절 내리 4년간 '명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국민의 정부에선 청와대 대변인· 정책기획수석· 정책특보, 문화부장관 ,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검·경 개혁도 큰 과제"

이대통령 "사회 곳곳서 비리 만연…국민 신뢰 잃어"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라면서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까지 포함해서 개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연합뉴스

칭하이 위수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자 해외순방을 취소하고 귀국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 제공〉

"中 칭하이 지진 발빠른 대처 돋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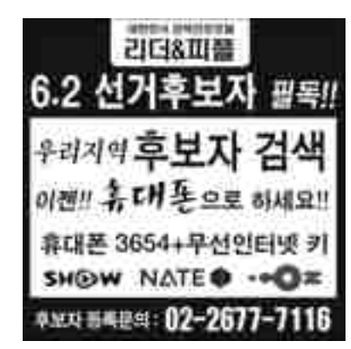
AP·WP 등 해외 언론 호평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를 불러온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 지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발 빠른 구조조치가 국제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중국 칭하이성 티베트족자치구인 위수현에서 발생한 강도 7.1의 강진으로 2200여명이 사망하고, 1만 2000여명이 부상했으며 막대한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지진 피해 구조를 위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조치는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 당시 해외순방 중이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조기 귀국, 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구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노력과 사회 각 계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인명구조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재민들은 임시 거처 등을 제공받았다. 재난지역에는 전기· 통신· 식수· 식품· 의약품과 난방시설 등이 제공되었으며 전력공급과 통신 서비스도 회복됐다.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과 재난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에 대해 AP통신· 워싱턴포스트· 영국 데일리뉴스· CNN 등은 특별보도하기도 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